

| 사회적 대화 국제 활동 |

# ‘중국 경제사회위원회’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온라인 회의 개최

손옥이 국제협력 전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화)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중국경제사회이사회(CESC)와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경사노위 측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운영국장, 기획위원, 수석전문위원, 대외협력실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중국 경제사회위원회는 구오준(Guo Jun) 중국경제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퀴보(Qu Bo) 중국외국어대학 국제관계학연구소장, 치훤이

(Chi Hui) 중국의학원 의료정보원 소장, 장준(ZhangJun) 푸단대학교 경제학과 학장, 지양잉(Jiang Ying) 중국 사회학법학회 부위원장, 웬지안민(Wen Jianmin) 베이징 과기대 의학과 학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재 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으로 나라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코로나19 정책지원관련 경험공유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집중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인류는 그동안 어떤 위기도 이겨 내왔던 훌륭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고, 곧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 한국과 중국이 관련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양국이 빠른 시일 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아가 코로나19가 앞당긴 뉴노멀에 대응하여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노사의 공동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한국 정부 대응의 기본 방향은 ‘보건’과 ‘경제’의 두 수레바퀴가 가능한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방역은 최대한 하되, 경제적 충격은 최소로 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정홍준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경과와 성과’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대응체계 및 주요합의 경과 및 내용을 소개했다.

정 수석은 특히 7월 28일에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했다. 정 수석은 “이번 협약이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노사협력, 둘째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셋째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넷째 국가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등 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사정이 함께 ‘연대와 협력의 합의정신’을 표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Wen Jianmin 베이징 과기대 의학과 학장은 ‘중국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방역조치, 사회적 대화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집행하였고 중앙과 주정부, 지방정부를 잇는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작동시켜 효과를 보았으며 방역조치로는 이동 금지, 국경봉쇄, 춘절연장 등이 이행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고용안정, 기업세제 지원, 내수진작 등의 노력을 했으며, 중국 경제사회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제안서를 발표함으로 ▲저소득층,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 문제 ▲생산과 일자리 재개를 위해 필요한 대책 등에 정책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사회적 대화기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마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바이러스라는 특성상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공감했다.

또한 양국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노사,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대화가 이런 협력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주춧돌의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중국경제사회위원회(CESC) 개황

### ■ 설립일 및 목적

- (설립일) 2001년 7월'
- 설립 목적
  - 경제·사회 문제 통합연구에 중점
  -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회원국이자 아시아 이사국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정협 : 각 정계의 대표로 구성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책자문기구. 1954년 헌법에 의거 기능이 전국인민대표대회로 이관될 때까지 사실상 중국 의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54년 이후 헌법에는 공식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역할과 권한을 그대로 유지

### ■ 주요기능 및 역할

- 중국 국민들의 경제·사회 권리 도모 지원
- 주요 경제 사회 이슈를 연구, 정부 정책 자문 제공
- 모든 분야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에 생산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

### ■ 조직

- 위원장: Zhang Qingli
- 구성: 190명(경제, 사회, 정부, NGO, 사업가 등, 이중 78명은 국회 상무위원)